에너지관리공단 자금지원실 **홍순용** 실장

효율적 자금지원 위한 체계적 관리시행

ESCO시장 활성화에 주력

지난 1월 에너지관리공단 자금지원실장에 홍순용 실장이 새롭게 왔다. 최근 고유가로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증가하고 있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심사와 집행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 같은 시기에 신임 자금실장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막중하다. 신임 홍 실장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

오혜은 기자/hi9187@hanmail.net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의 심사 · 집행기관으로써 맡은 책무가 막중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국가가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요한 시책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유가가 100불을 넘어서는 초고유가시대가 도래해 단순한 절약이 아닌 시스템적인 대책, 즉 근원적으로 에너지절약을 이룰 수 있는 시책으로서의 에너지절약시설투자가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자금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자금지원실장으로서 책임감을 매우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초고유가시대의 국가적인 대응책으로서 우리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지원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의 체계적인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바르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에너지이용합리화 시설투자효과의 극대화를 이끌어 감으로써 초고유가시대 여러분의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의 지원 지침과 지난 해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에너지절약시설과 전력수요관리사업에 대해 올해 지원분에 한해 금리를 기존의 4.75%(2008년 1/4분기 기준)에서 1.5%p 인하해 3.25%로 우대 지원합니다. ESCO 투자사업의 경우 올해 대출 분에 대해서는 일반변동이 3.25%, 일반고정은 1.5%로 적용돼 각각 1.5%p씩 혜택을 보는 셈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우대 지원과 ESCO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율을 기존 90%에서 100% 이내로 상향조정했으며 ESCO 성과보증방식에 대해서도 10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소 ESCO 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자금배분방식도 지난해에는 7월말을 기준으로 잔여예산 발생시대 · 중소기업의 구분 없이 접수순으로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9월말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개선했습니다.

기타 자금사용자를 보호하는 규정과 자금사용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 등을 신설했는데 공단에서 제작해 ESCO 기업들을 포함한 다소비산업체와 건물에 배포한 자금 · 세제지원 안내 책자와 공단 홈페이지(http//:www.kemco.or.kr)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향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의 지원 방향과 개인적으로 바라는 점이 있다면.

우리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금지원사업의 추진전략이 바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의 지원방향이자 자금지원실장으로서 바램이라 하겠는데요.

첫째, 앞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자금의 체계적인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융자금의 적정사용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업무개선활동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또 에너지절약을 위한 시설투자를 통해 부가가치 창출과 ESCO 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반을 확충해 나가는데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관련 업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난해 정부는 ESCO 투자사업을 지식서비스산업의 하나로 선정해 ESCO 투자사업의 육성의지를 밝힌 바 있으며 현 지식경제부에서도 ESCO 전문기업을 기술력과 금융기법을 겸비한 종합에너지관리 컨설팅업체로 육성해 국가경제의 '新 성장동력' 으로 삼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 ESCO 기업들도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호응해 ESCO 투자사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ESCO 기업들 스스로가 경쟁력을 키워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ESCO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투자자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적정 장비와 인력확충, 이들의 질적 향상에도 힘써야하겠습니다.

아무쪼록 ESCO 투자사업의 발전으로 여러분 ESCO기업들이 번창하시고 사업의 결실에서 얻는 에너지절약효과도 극대화시켜 우리 경제가 초고유가의 높은 파고를 헤쳐 나아가는데 우리 ESCO기업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